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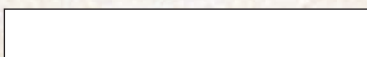
C

A

Design Magazine CA 256
2021.5—6
Designer & Plant

×

à présent a looking into
Shin Hyerim
2021.5.12.—5.30.
p-s-1



로 시양 윤 *Loh Xiang Yun*

플랜트 프레스 *Plant Press*

플랜트 프레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인쇄 전문 스튜디오다. 식물학과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작품을 만들고, 완성된 결과물을 배포한다. 플랜트 프레스를 이끄는 건 미술가이자 식물학자인 로 시양 윤이다.

로 시양 윤은 1988년 출생으로 미술가이자 식물학에 특화된 일러스트레이터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주로 사람과 자연의 얽힘과 설움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사진 등을 통해 꼼꼼히 이뤄낸 관찰의 결과로 싱가포르라는 도시 국가에서 자연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식물과 주변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내리는 자연에 대한 정의가 어떤 과정으로 바뀌는지를 기록한다.

2018년에 식물학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첫걸음을 떼었고, 그동안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Singapore Botanic Gardens*을 위한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각종 꽃 관련 책자나 논문, 분류학 도서 등에 작품을 계속해서 실고 있으며, 말린 허브를 샘플을 알코올로 보존하는 방법을 사용해 새로운 종들을 묘사한 바도 있다. 지금은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의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인 '싱가포르의 꽃들 *Flora of Singapore*'에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꽃들'은 말 그대로 싱가포르에서 자라는 모든 꽃과 식물을 찾아내 항목화하고 책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lohxiangyun.com
Instagram: @xyxiangyun



Loh Xiang Yun, Shot by Charmaine Poh

Loh Xiang Yun / Plant Press

Plant Press is a print studio based in Singapore. We collaborate, produce, and distribute printed materials with a focus on topics related to art and botany. Plant Press is run by artist and scientific botanical illustrator Loh Xiang Yun.

Loh Xiang Yun (b. 1988) is an artist and scientific botanical illustrator who lives and works in Singapore. Her work interrogates how people relate to nature. Using her observations made through photography, she examines the everyday to study how nature is managed and engineered in our cities. Through durational projects that map and document plants in our surroundings, she charts the changing ways we see and define nature.

In 2018, she began her professional career as a scientific botanical illustrator, producing work for Singapore Botanic Gardens. Her drawings were included in scientific publications such as floras, monographs, taxonomic papers and new species descriptions primarily using dried and alcohol-preserved herbarium specimens. She is currently contributing illustrations to the 10-year project 'Flora of Singapore' spearheaded by the Singapore Botanic Gardens under the National Parks Board (NParks). It aims to catalogue and describe all the plant species that can be found in Singapore, from mosses to flowering plants.

가장 아끼는 식물인 아스파라거스 세타세우스



(위) 집안의 숲 *My indoor jungle*
(아래) 현관과 뒷마당 *Porch and backyard*



(위) 책과 소지품들 *Books and belongings*
(아래) 스튜디오 내 작업 공간 *Working desk in my studio*



«Organised scenery»

Photobook, 17pp, 115x165mm

FABRIC: Chiffon / BINDING: Thread sewn

SELF-PUBLISHED: 2019 / 6th EDITION: 50

«Organised scenery»는 인공 공원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림과 같은 풍경을 사진 합성으로 담은 작품집이다. 총 12개의 사진이 담겨 있는데, 전부 자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자연적인 텍스처와 인공 텍스처가 함께 조직됨으로써 자연스러운 공간을 재창조하려고 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를 대부분은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주 순간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시폰을 인쇄 매체로 사용해 그러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오래 가도록 했다. 이미지를 투명하게 겹쳐서 인쇄함으로써 촉각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 안에서 자연이 어떤 식으로 되살아나는지를 표현했다.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과 경험들을 약간이나마 변화시키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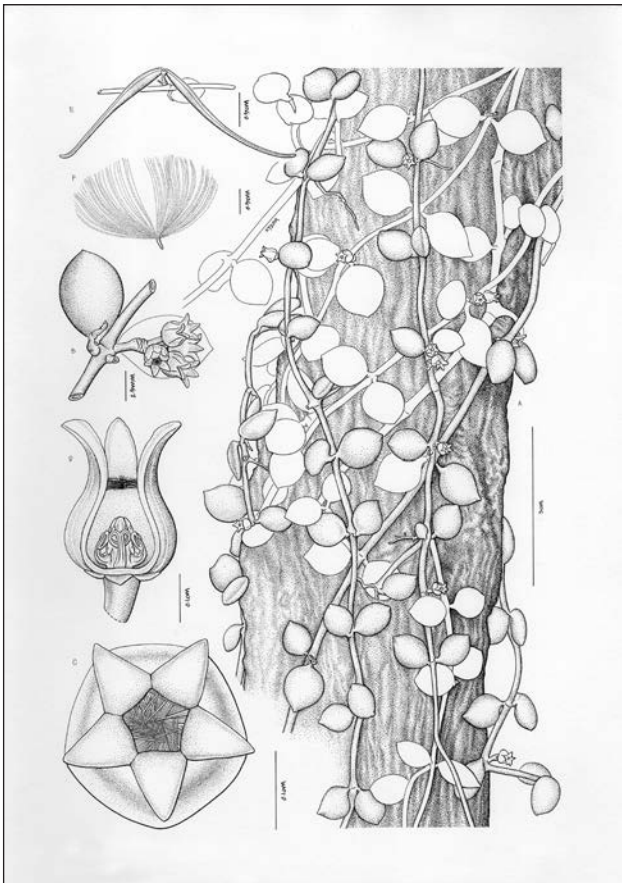
«Organised scenery» is a photographic composite of picturesque scenes found in man-made parks. My experience with nature is captured through a collection of these twelve photographs.

Natural and man-made textures are organised together to form these 'natural' recreation spaces. As urban dwellers, most of us have a great yearning to connect with nature. The ephemeral feeling of transiting between natural spaces and the high-density cities is translated through the use of chiffon as the printing medium. The use of this medium with the printed translucent overlaying images further engage our tactile and visual senses to examine how nature is being engineered in our cities, reframing our perception and experiences with nature.



<Dischida nummularia>, 2019, 브리스틀 판지에 펜과 잉크로 그림. 싱가포르 식물원에서 의뢰를 받아 그린 식물 그림. '싱가포르의 꽃들 Flora of Singapore'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

2019, Pen and ink on bristol board. Botanical drawing commissioned for Singapore Botanic Gardens, 'Flora of Singapore' project.



<Wrightia laevis>, 2018, 브리스틀 판지에 펜과 잉크로 그림. 싱가포르 식물원에서 의뢰를 받아 그린 식물 그림. '싱가포르의 꽃들 Flora of Singapore'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 이 그림으로 2019년 국제 과학 식물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권위 있는 마가렛 플러튼 어워드 Margaret Flockton Award에서 '우수 선정작' 상을 받음.

Pen and ink on bristol board. Botanical drawing commissioned for Singapore Botanic Gardens, 'Flora of Singapore' project. This botanical drawing won the 'Highly Commended' award in 2019 for the Margaret Flockton Award, an award - an international award for excellence in scientific botanical illustration.



«Plant-ed»

Photobook, 42pp, 148x210mm

PAPER: Maple Stucco, Naturalis Absolute White Matt

BINDING: Hand-sewn

SELF-PUBLISHED: 2015 / 2nd EDITION: 50

잡초를 발견할 때마다 순간적인 불확실성에 빠져들 때가 있다. 누가 심어놨나? 아니면 어쩌다 여기에 있게 된 걸까? 그냥 놔둘까? 어쩌면 내가 모르는 꽃이 아닐까? 잡초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 짓는 걸까? 인간이 집에서 식물을 기르기 시작한 때부터 잡초의 존재는 늘 성가시기만 했다. 그러나 잡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명쾌하지 않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식물을 잡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공원이나 풀밭, 농장 등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에 날아든 불청객은 거의 무조건 잡초로 분류된다.

또한 원래 서식지를 벗어나 다른 영역을 공격적으로 침투하는 풀을 잡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잡초'는 그리 대단한 의미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상황마다 잡초가 될 수도 있고 귀한 식물이 될 수도 있기때문. 집에서 개인적으로 정원을 가꾼다고 했을 때 잡초는 더더욱 '개인적'인 용어가 된다. 그냥 취향의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두 쪽으로 된 사진첩들로 책을 구성했는데, 나는 독자들에게 식물에 대한 우리의 인지와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싶었다. 잡초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개념이고, 식물들을 구분 짓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도 역시 인간의 행위이다. 결국 식물과 우리의 관계는 애증이 섞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잡초의 재미있는 점은 잡초가 경계의 모호함에서 자유롭게 자라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다. 어떤 때는 풀이 됐다가 어떤 때는 잡초가 됐다가, 역할도 막 바꾸면서 말이다. 잡초와 식물은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영역에서 인지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주관성이란 것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There is always a moment of uncertainty when we come across weeds. Are they there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Do we want them there? What sort of criteria do we consider when making such judgement? As long as humans have domesticated plants, the existence of weeds has been a concern. We categorise a plant as a weed for various reasons; it could be a plant growing in a place where we find it undesirable, especially in human-controlled environments such as gardens, lawns, parks, farm fields, et cetera.

The term weed also applies to plants that aggressively invade territories outside their original habitat. Taxonomically, the term weed has no botanical significance, because a plant that is a weed in one context is not a weed when growing in a situation where it is in fact wanted. In the context of the home and garden, the categorisation of weeds is more often than not a judgment of taste. Through a series of diptych photographs, I attempt to question our perceptions and interactions with plants in human-controlled settings. The very concept of a weed is one of human design; it is us who draws the demarcation lines and constructs classification labels. In that sense, you can say that our relationship with plants is an ambivalent one.

The interesting thing about weeds is that they alone inhabit ambiguous positions, shift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role of plant and weed. That said, how we choose to perceive them is purely a subjective and temporal notion.



한 식물학자 친구에게서 분양 받은 썩기풀



대만 타이페이 / 미국 LA / 대만 타이페이
미국 LA / 싱가포르 호파빌라
대만 타이페이 / 싱가포르 주치아트 / 미국 LA

«Salad»

Photobook, 248pp, 170x240mm

PAPER: Maple Bright, Shiruku White / BINDING: Quarter bi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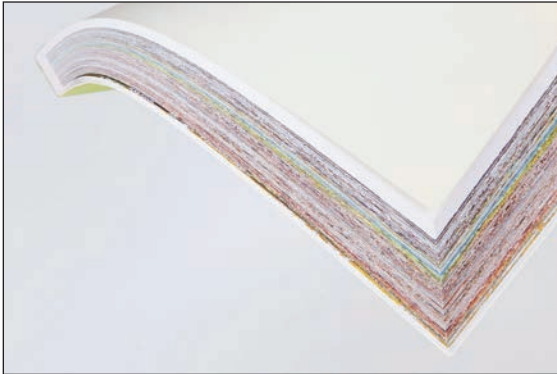
SELF-PUBLISHED: 2018 / FIRST EDITION: 300

로 시양 윤의 '샐러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지에 관한 책이다. 공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텍스처를 등장시킨 200여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진들은 5년 동안 24개 공원을 로 시양 윤이 직접 방문하고 돌아다니며 찍은 것들이며, 과학 생물학을 전문으로 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녀가 가진 열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묘사가 일품으로, 큰 줄기의 특징과 세부적 디테일 모두 빠지는 데가 없다. 그녀는 과학자들처럼 현장에서 식물들을 채집하고, 분류하고, 식별하고, 사진을 찍는다. 여기에 나뭇가지, 잎사귀, 돌맹이와 같은 요소들을 곁들여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한다.

이 작품집이 독자들에게 자연을 드러내는 방식은 한마디로 표현해 '뷔페식'이다. 여러 가지 항목들로 다양한 식물들을 분류함으로써, 정말로 샐러드 뷔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며, 독자들은 자유롭게 아무 쪽이나 펼쳐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페이지 구성을 한 것도 아니다. 자연적 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을 대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다만 식물에 눈길을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맥락까지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자연과의 관계를 숙고할 수 있게 된다.

Intrigued by human perception of nature, Salad by Loh Xiang Yun presents a collection of 200 photographs that bring the various textures of a park to the fore. Steadily amassed from 24 parks over five years, Loh brings her passion as a scientific botanical illustrator into the tableaux she depicts, presenting a capsule of images guided by precision and an eye for detail. Emulating scientific fieldwork methods of collecting, ordering, and identification, each photograph is accompanied by a notation of its location and composition - twig, leaf, stone, netting, other.

The book recalls a sample swatch in its presentation - a comprehensive catalogue of options, a buffet-style of offerings similar to that provided in the assembly of a salad. Through its thoughtfully organised pages, Salad probes the idea of the natural vs. contrived environment, allowing viewers to look beneath the surface in contemplation of mankind's relationship to nature.



1, 2, 3
4, 5, 6, 7
8, 9, 10



1. 미국 캘리포니아 조슈아트리 국립공원
3. 일본 도쿄 세이비공원
4, 5, 6. 일본 도쿄 젠푸쿠지 공원
7. 일본 도쿄 와다보리 공원
8. 일본 도쿄 산시노모리 공원
9. 싱가포르 맥리치 저수지 공원
10. 싱가포르 부킷바툼 자연공원

식물을 기르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가? 언제부터였나?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자연공원과 보호 구역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면 내 안의 '자연인'이 강력하게 살아나기 시작한다.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도 자연에서 모은 걸 수집하고 같은 반 친구들끼리 나누는 활동을 적극 권장하셨는데, 그런 활동들도 자연에 대한 관심을 북돋웠다. 그때 코코넛 껍질, 떨어진 잎사귀, 나뭇가지, 양사나 씨, 콩 꼬투리 등을 주웠던 기억이 난다. 나뭇잎은 납작하게 말려서 책갈피로 쓰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이어져 나만의 정원을 갖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란 것 같다.

2014년 독립을 하면서 집에서 나와 살게 되었다. 룸메이트와 함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거기에는 현관과 커다란 뒷마당이 있었다. 실외 공간을 보면서 나만의 식물원을 꾸며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꽤 큰 식물도 기를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했다.

식물을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가?

주로 친구들이나 룸메이트, 동료들이 선물로 주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씨나 꺾꽂이용 가지를 얻어오기도 했고. 그런 날은 씨와 가지에 물을 흠뻑 주고 정성스레 보살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케아, 식물원에서 화분을 사 올 때도 있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 버린, 꽤 쓸만한 식물을 주워올 때도 있다. 그런 날은 혼자서 '오늘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나의 식물 선호도는 잎사귀 모양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편.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식물 중 가장 좋아하는 건 아스파라거스 세타세우스 *Asparagus setaceus*이다. 보통 아스파라거스라고 잘 알려진 종인데, 양치식물처럼 생겼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아공에서 발견된 관목이다. 깃털처럼 생긴 납작한 초록색 잎사귀는 사실 가지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샀고,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기르는 중. 창문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식물을 기르기 시작한 사람에게 권해주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처음 식물을 기른다면, 스킨답서스 픽투스 *Scindapsus pictus*를 권장한다. 실버포토스 *Silver Pothos*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동남아시아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녀석인데, 하트처럼 생긴 잎사귀 모양으로 유명하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화색빛 점들로 매력적이고, 게다가 덩굴이 빨리 자라기도 한다.

실버포토스는 키우기가 매우 쉬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잘 죽지 않아서 부담이 없다. 환경 적응력이 매우 좋아서 어지간한 조건에도 잘 자란다. 조금의 습도와 온도만 유지해주면 쉽게 기를 수 있다. 물도 주기적으로 주면 좋지만, 실버포토스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다.

게다가 실버포토스 줄기를 약 4—6인치 잘라내 심으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실버포토스가 된다.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식물로부터 어떤 영감과 자극을 받는가?

싱가포르 식물원 *Singapore Botanic Gardens*에서 처음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처음 주어진 임무는 식물을 종별로 구분해서 식물 표본 책자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발매서 식물들을 수집하고, 신문 사이에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후, 그것들이 각각의 이름표를 붙여 주었다. 그렇게 종들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식물들이 가진 모양과 패턴, 크기와 구조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런 다양한 형태학상의 변화가 수분 작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는 무화과인데, 이런 사실 열매가 아니라 꽃이다. 다만 그 꽃이 안쪽으로 만개한 것. 무화과라는 종 안에도 여러 변형이 있는데, 거의 모두 고유의 벌들이 수분 작용을 담당한다.

식물의 고유한 모양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감이 되고, 그것들이 그렇게 발전해 온 기원과 사유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흥미롭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보여주는 생존 본능 또한 놀랍다. 생존을 위해 극한의 강인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 극한의 매력을 발산해 수분 과정에서 낙오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식물들의 생존 방식과 열정에 감탄하곤 한다. 그러면서 식물들은 잘난 체 하거나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지도 않는다. 식물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고 자연의 섭리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동시에 그런 경험들이 내 창작 과정에 도움이 될 것도 의심치 않는다.

식물을 기르는 것의 장점은?

일에서부터 잠시 떠나서 쉬고 싶을 때 식물들만큼 건강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채워주는 것이 없다. 창작 활동을 할 때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편이다. 집중하다 보면 다른 신체적 감각이 마비된 듯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5분 정도 쉬면서 식물들의 잎과 뿌리 부분의 흙을 만져본다. 필요하다면 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잎이 작게 돋아난 걸 발견하기도 하고, 꽃봉오리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정말 기쁘고 흐뭇해진다. 간단하고 작은 것들인데,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자신만의 독특한 식물 기르기 방법이 있는가?

일단 나는 식물학자나 식물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지식 같은 건 없다. 그저 식물과 내가 본능적으로 서로를 느끼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본능에 따라 식물들을 관리할 뿐. 아마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필 때 비슷한 방법과 마음으로 할 거라 생각한다.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가장 알맞은 것을 제공하는 것.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말이다. 흙을 갈아주거나, 화분을 바꾸거나, 죽은 잎을 자르고, 먼지를 닦아내는 일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

식물과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나?

나에게 식물은 떨어질 수 없는 단짝 친구다. 집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꾸몄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일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과 보내는 시간도 꽤 긴 편이다. 일부러 식물들과 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고.

Why/how did you started to get your plants?

I had vivid memories of my family bringing me to the Nature Parks & Reserves on the weekends, and that sparks a naturalist's flame in me. Back in high school, my science teacher would also encourage us to collect things we found in nature to share them with the class, and that keeps my interest in nature growing. I remember bringing home natural things such as coconut husk, fallen leaves (which I pressed and made into bookmarks), broken logs, Angsana seeds, pods, etc. This continued interest eventually led to me have a desire for a garden.

When I first moved out of my parents in 2014, I began living with housemates in an old apartment that has a porch and a huge backyard. The outdoor area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start my plant collection as it could accommodate a few big and many small potted plants.

Where do you go to get plants?

Most of the plants were given to me by friends, housemates, colleagues, nursery workers or I would get cuttings or seeds from friends and we would swap them. I also get my plants from supermarkets, convience stores, IKEA, nurseries, and plant markets. Occasionally, I would also be lucky to find and bring back the abandoned plants in my neighbourhood.

Which one do you like the most?

I have a penchant for pretty foliage. Amongst my plant collection, the one I like the most is *Asparagus setaceus*, commonly known as the common Asparagus Fern. I like how it misled people to think it is a fern but in fact, it is a shrub native to South Africa. Their feathery, fern-like flattened sprays of bright green-looking 'leaves' are actually stems. I bought it from a local supermarket and has been with me for 5 years. It is settled on my plant bench close to the window.

What kind of plant do you recommend to someone who just started?

For the first-time plant parent, I would recommend *Scindapsus pictus*, commonly known as Silver Pothos. This species is native to tropical rainforests of Southeast Asia. It is known for its heart-shaped leaves, splashed with spots of iridescent grey, and fast-growing trailing vines.

Reputed as being one of the easiest houseplants to keep alive. These plants are truly versatile and can tolerate dimmer settings. Keep moderately moist, allowing drying out in between watering. If you are not so disciplined with the watering, this easy-going plant bounce back quite quickly once you resume watering.

What's more awesome is that you can snip off 4 to 6 inch lengths of the healthy stem of the Silver Pothos, propagate and gifted them to your friends!

How/what do you inspire from the plant? Or effect?

When I started volunteering at the Singapore Botanic Gardens, my first task was to sort out plant specimens for deposit as herbarium vouchers. I would have to place the plant specimens that are collected in the field, pressed flat between newspapers, and label them with the relevant collection number. In the midst of the sorting process, I discovered that plants exhibit an enormous variation in shape, size, and structure. The plant morphological variation is interlinked to pollination. One example is my favourite 'fruit' - fig, it is actually a ball of enclosed flowers that bloom invertedly. Almost every species of fig has its own unique species of "in-house" wasp pollinator (except for some commercially produced figs).

I am inspired by plants' morphology uniqueness and how they evolved individually and independently on each island, producing what appeared to be new species. Their survival instincts to thrive on with resilience and faith in attracting their own pollinators is something I am in awe of. I love that plants are unassuming in their ways. From plants, I learnt to be more appreciative, trusting, and accepting of my own experiences and creative process.

What is the benefit of having plants in your place?

Plants are a great healthy, restorative distraction for me. My creative work consumes a lot of my mental energy and I sometimes forget to be in touch with my other senses. I could stop for 5 mins in between my work, go over to feel their leaves, or check the soil to see if they need watering. They quietly surprised me with a new young leaf or a new flowering bud that I hadn't noticed, and that makes me so happy! It's kind of a simple and unexpected joy I experience with life.

Do you have a ritual of the plant?

I am not an expert in plant care - I don't have a routine - and often trust my intuition to know what they need at any given moment. How I take care of them would be the same way as to how I care for my loved ones; seeing how they grow and change with time. Sometimes, I would change the soil, repot the overgrown ones, remove the dead leaves, or wipe off the dust on the leaves' surfaces.

How long do you spend time with your plants? (daily)

I see them as my loyal companions. As I mostly work in my home studio, I spent time with them daily as much as they are present in my everyda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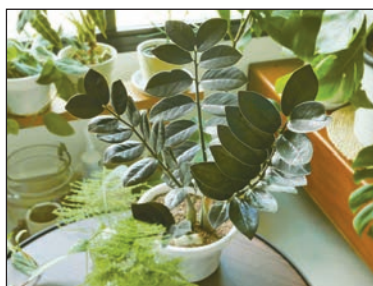
처음 식물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기 좋은 스킨답서스 픽투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은 스킨답서스 픽투스



식물학자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은 보석 금전수



식물학자 친구에게서 분양 받은 유포브리아 티루칼리

김경수 19, 48
김도연 72
김영준, 오도함 74
김욱 48
김주희 50
김현모 24
Nuria Cabrera 32
뫼밥맨 31
DNMD in Designer Lounge 58
Loh Xiang Yun 43
마빈 킴 52
박기현 54
박소진 56
박하림 71
백두리 36
별책부록 66, 152
비플랫폼 156
서예은 21
설찌 34
송현정, 하태웅 27
신혜림 88
seedkeeper 38
우나리 57
Julia Löffler 42
Javin Mo 30
정대봉 75
정서안 65
정은영 40
정혜인 60
zioxla 69
최예인 57
p-s-1 136
Pionara 25, 62
Fraser Muggeridge 41
Printed Matter 68
하재민 55
하현 70



우수콘텐츠잡지
2020



ISBN 977-23-8418-200-9
ISSN 2384-1826

₩16,000